

지역 소식통

고창군, 축사 악취저감맞춤 컨설팅

고창군이 9일 축산농가들의 악취저감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과 연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은 사전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농가들 방문해 발생위치, 내·외부관리 상태 진단 후 악취발생의 원인을 찾고 시설 개선 및 관리 방법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맞춤형 컨설팅이다.

컨설팅을 통해 사육시설과 처리시설 환풍구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생 원인과 구조를 파악해 시설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사육시설 내부의 환기구 개선으로 악취 저감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농가에 안내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소방서, 소방시설 점검장비 무상 대여서비스 창구 운영

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점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 창구를 운영 중이다.

시설규모가 작거나 업체의뢰가 어려워 직접 점검을 희망하는 관계인을 위해 방문점검제, 절연저항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 15종목 62개의 점검장비를 구비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대여서비스는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와 각 119안전센터다.

김원술 정읍소방서장은 "자체 점검에 따른 점검장비가 필요한 관계인은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 570-124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초대 경찰체험 활동·학교폭력예방교육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고창지역 아동센터' 및 '썬미트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초대에 경찰체험 활동 및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음료수와 학교폭력예방 홍보물품인 저금통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경찰관과 함께 경찰체험활동도 하고 성폭력·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영상과 O·X문제를 같이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고창지역아동센터 김모 군은 "경찰서에 직접 와서 교육을 받으니 시간가는 줄 몰랐고, 경찰관이 내는 퀴즈를 맞추고 상품도 받았으며 겨울방학에도 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고창군, 맞춤형 상담·이행강제금 경감 등 적법화 전방위 지원

고창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부에서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창군도 상담과 홍보활동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축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3회 개최했고 건축, 환경, 소방 분야를 중심으로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축종별 협회 단위로 상담도 2회 개최했다.

아울러 적법화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조례개정으로 15%까지 경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또한 전담공무원 90명을 지정해 농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무허가축사 유형 등 적법화 진행사항 파악 적법화 홍보와 이행지원 등 적법화 추구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고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279개 농가(한우 188, 젓소 26, 돼지 10, 닭오리 56, 기타 4)이며 61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군은 이달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무허가축사 중앙컨설팅에 적법화 상담을 마련하고 무허가축사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축

사무소와 연계한 농가별 상담과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SNS홍보를 병행하며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하고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사 용종지·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

3대 치안정책 수립·시행

정읍경찰서(서장 김중화)는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본부팀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서는 9일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본부 회의를 2층 어울마당에서 개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차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 보호 중심의 젠더폭력 근절, 아동·노인·장애인 대상의 학대·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르는 3개 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 정책 환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그 첫걸음으로 100일간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으로 지정,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인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신고기간 운영 및 집종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먼저, 8월말까지 본격적 피서철을 맞아 관내 야외물놀이장, 대형목욕시설 등을 대상으로 물가 전문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물레카메라 범죄를 단

속 할 것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단속하고 또한 가정폭력의 증가로 가정폭력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로 통해 일제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방학기간 중 가출 청소년 등의 탈선 비행을 예방하고 재학·교육을 위해 정읍시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 선도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며, 셉테드(CPTED·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활 속 범죄 요인을 찾아 제거할 계획이다.

김중화 정읍경찰서장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과제에 따라 여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가을과종 맥류 보급종 18일까지 신청·접수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가을에 파종할 보리, 밀 보급종자를 지역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될 맥류 보급종은 청보리 47톤, 쌀보리 20톤, 금강밀 27톤, 수안밀 3톤, 기타 1톤으로 총 6개 품종 98톤이며 신청한 종자는 파종기 이전의 9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맥류 보급종은 전년 공급량 대비 10% 증가되었으며, 품질이 최고 대립이며 취반특성이 뛰어난 큰알보리 1호, 내한성 및 수발아에 강하고 시기가 우수한 수안밀 등이 추가되었다.

정부 보급종은 엄격한 종자검사와 품질관리를 거쳐 순도와 발아율이 높은 종자로 공급단위는 20kg로 공급되며, 소독종자와 미소독 종자를 구분해 신

창하고 미소독 종자는 자체적으로 소독해서 파종해야 병해충 발생이 적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본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농가는 추가 신청이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잔량 품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하여 적기 파종으로 고품질 보리, 밀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유치 기원 15일 부안예관서 서울모테트합창단 무대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유치 기원하는 서울모테트합창단 초청연주회가 부안군 기독교연합회(회장 김영복 목사)주관으로 오는 15일 부안예관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초청연주회는 오는 18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의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 최종 결정에 앞서 부안 유치를 기원하려고 마련되었다.

2023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에서 개최되면 번산반도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북의 미래 천년을 책임질 전 세계 160여 개국 5만여 명의 스카우트 학생과 관계자가 부안을 찾는다.

김영복 부안군 기독교연합회장은 "서울모테트합창단 초청연주회를

통해 군민 모두가 육성하는 아름다운 화음을 즐기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며 "2023 세계잼버리가 부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 군민의 염원을 모아주"고 말했다.

한편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지난 1989년 창단된 우리나라 대표 합창단으로 대만 싱가포르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정기연주, 교회연주, 소외된 이웃을 위한 특별기회연주 등 1300여 회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2005년에는 대한민국에 숭상을 단체로 수상했으며 2014년 문화예술공연 단체상과 2017년 제3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등 우리나라 순수음악의 자존심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합창단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스포츠 전지훈련 최적지로 각광

고창군이 우수한 체육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9월 군에 따르면 고창군에는 올해에만 북슬레이 국가대표팀을 비롯 축구, 야구, 유도 등 8000여명의 다양한 종목의 선수와 코치진들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으며 7억여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우수시설로 지정된 고창군립체육관을 비롯해 고창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생활체육기장 생활야구경기장 등 훌륭한 체육시설 기공을 축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꿈나무 선수와 한성기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50여명이 지난 달 28일부터 오는 11일 까지의 일정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전지훈련을 주도하고 있는 전(前) 한국배드민턴국가대표팀 감독이자 박우봉 이음대 선수 등 결속한 인재를 키워낸 한성기 총감독은 "행정 구역 전체가 생활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의 청정하고 환경 속에 우수한 체육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선수들의 기량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박우정 군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전지훈련 하고 있는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올리고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고창군은 앞으로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선수들을 비롯해 각종 대회를 유치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ad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boxes, along with a cartoon mascot character. Text describes the quality and health benefits of the wine, and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